

여주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舊경기실크 공장부지 문화적 활용, 어떻게 할까요?

- 여주시민에게 묻습니다! -

2021. 11. 21. 일

“시민위원 2차 집중숙의”
분임별 주요 토의내용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실크역사 및 여주역사, 홍보관
- 경제활성화 도모 공간이며, 교육전문가가 상주해서 진행될 수 있는 작품과 이색적인 창작물의 판매 가능한 공간
- 청소년문화 예술 체험단, 첨단 체험공간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청소년 공간 필수
 - 타지역의 모범사례로 도서관, 예술지원, 학교 동아리 가능하도록
-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주체 중요
 -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 배분 균형
 - 운영에 관해 연말 평가나 1년의 내용으로 시스템, 문서화 / 시민위원의 직접 점검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여주시민이 사랑하는 문화플랫폼
-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간
- 남한강과 연계된 도심속의 관광 허브
- 청소년들의 문화 아지트
- 지역상권과 연계된 상생의 공간(경제활성화)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시민참여형 원칙
- 가치기억의 원칙
- 접근성과 편리성 고려
- 개방성의 원칙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방향성
: 여주시 문화플랫폼 (여주의 역사와 문화시설을 연계)
- 활용방안
: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
(문화체험, 문화공방 등).
지역과 공간이 연계되어야 함
(접근성 활용, 할인쿠폰 등 제공)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여주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(여주의 역사, 여주의 문화, 여주의 문화시설 등). 우선 여주를 방문하면 경기실크자리를 방문하고, 문화를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
- 모두를 위한 공간. 특히, 교통약자(장애인,아이동반가족, 청소년 등)가 배려 받는 공간,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함
-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공간
-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공간
- 시민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, 경기실크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리되는지 확인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청소년과 부모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
- 청소년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곳
- 자체운영이 가능한 공간: 볼거리, 즐길거리, 먹거리 등 모든 것이 존재
-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재미난 곳
-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체험이 가능한 곳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지속가능한 관리 가능
- 특정단체 독점 방지, 이해관계 없도록
- 여주시의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고려
- 운영주체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
 - 사용자(이용자)에 대한 접근은 풀로 개방
 - 접근성을 2가지로 이원화 하여 접근해야 함
- 시간개방성, 물리적 공간의 개방성, 이용자의 개방성 확보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문화재를 원모습으로 복원해서 그 문화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대와 접목
- 여주에서 아이를 위해 공간을 잘 형성해서 여주로 타 지역 엄마들이나 아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함
- 강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마련되길 바람.
- 플리마켓 시설. 청년들이 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공간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
- 청년,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,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시설. 경기실크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공정성과 투명성. 무엇이든 자유롭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시민이 감독관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(전문가도)
- 지속가능성. 전담하는 업체가 생겨서 변함없이 처음 세웠던 계획이 유지되었으면 함
- 안전성. 최우선
- 시민의견반영. 철저하게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100% 시행되어야 함(순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.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하는데 이를 어린이들이 디자인함.)

1. 舊경기실크부지의 활용 방향

- 관광보다는 여주시민들 위주의 휴식이나 문화생활, 상권 등에 초점을 맞춘 공간.
- 여주만의 특색이 보이는 공간으로 관광문화로 활용
- 일회성 공간이 아닌 갈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지속성이 유지되는 공간
- 남녀노소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공간마다 특색 있게 되길 바란다.

2. 舊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 원칙

-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알려야 한다.(투명성)
- 모두가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해야 함
- 변화를 최소화하여 현 부지의 역사를 잘 보존하여야 한다.
- 주변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자재 활용